

日本の 석유 유통구조 분석 (上)

魯 東 雲

〈에너지경제연구원정보분석실 연구원〉

I. 머리말

日本の 석유 유통구조는 석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60년대 이후 번영과 쇠퇴 및 조정 국면을 겪어 왔다. 석유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했던 60년대의 무리한 생산설비 및 판매망 확장은 2차석유위기 이후 정제가동률의 저하,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 轉賣品の 등장에 따른 판매마진의 격감 등 석유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日本 정부는 정제산업의 합리화, 휘발유 생산할당제, 주유소의 건설규제 및 주유소 구조개선 대책등 일련의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석유산업의 경영은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냈다.

80년대 중반부터 세계 석유시장의 개방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日本은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목적으로 '87년부터 점진적인 석유산업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추진, '92년 3월을 기해 마지막 단계인 원유처리지도를 폐지시킴으로써 석유산업을 본격적인 경쟁단계에 올려 놓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속에서 주유소의 건설 및 전적규제가 폐지되자 그동안 감소하던 주유소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주유소의 대형화, 집약화 및 효율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등 유통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통계열화를 인정하지 않는 「독점금지법 지침」이 '91년부터 발효되고 '92년부터는 원

유처리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통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석유수급 동향

日本の '90회계년도('90.4월-'91.3월) 실질 GNP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1조 697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1차에너지소비는 486.2백만 TOE로 5.3% 증가하여 에너지소비/GNP원 단위는 약간 개선되었으나 석유소비는 6.0% 증가, 석유소비/GNP원단위는 다소 악화되었다.

윤활유 등을 제외한 日本의 '90회계년도 연료유 소비(판매기준)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218백만 kl(3.6백만 b/d)에 달했으며 국내제품생산은 10.5%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제품수입은 오히려 18.1% 감소했는데 이는 걸프사태로 인해 원유보다는 제품가격이 급등하자 제품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최대한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국내 제품생산 증가와 걸프전지원금조달을 위한 석유임시특별세(₩1.02/l) 부과 영향으로 원유수입은 13.1% 증가한 238.5백만 kl에 달했다.

정제능력(4.6백만 b/d)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제가동률은 7% 포인트 상승한 77.3%를 기록했으며 연말기준 원유재고는 20.5% 증가한 2,900만 kl에 이르렀다. 동남아국가의 위락정제 증

日本の '90회계년도 석유제품별 수급실적

〈단위 : 천kl〉

	생 산	증가율	수 입	증가율	판 매	증가율	수 출	증가율
휘 발 유	42,978	5.8%	2,127	-36.4%	44,738	4.7%	48	-78.7%
나 프 타	11,835	26.5%	21,083	-9.7%	31,453	-0.2%	458	40.1%
제 트 유	4,705	12.7%	-	-	3,740	7.8%	950	41.9%
등 유	23,726	13.3%	3,819	-46.8%	26,553	-1.6%	497	11.0%
경 유	33,501	17.0%	4,953	-27.6%	37,674	8.2%	641	0.7%
중 유	72,287	7.2%	8,487	-1.7%	73,688	2.3%	4,543	24.8%
(연료유 계)	189,032	10.5%	40,469	-18.1%	217,844	2.9%	7,138	64.9%
운 활 유	2,545	7.6%	131	-33.3%	2,451	7.2%	250	-11.0%
기 타	6,498	3.6%	3	-31.0%	6,369	3.5%	55	6.4%
(비연료유계)	9,043	4.7%	134	-33.3%	8,820	4.5%	305	-8.3%

자료 : 석유자료월보, 1991. 6

가와 국내 가동률 증대에 따른 중유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수출급증(벙커C유 1.7배)으로 제품수출은 64.9% 증가했다.

日本の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휘발유수요는 승용차의 보유대수 증가 및 대형화·고급화 진전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경유는 물동량 증가 및 경유자동차의 증가로 8.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항공용 제트유는 지방화의 진전 및 고속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증가로 7.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나프타의 수요가 NGL로 대체됨에 따라 0.3%의 감소를 나타냈다. 등유는 暖冬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했으며 중유는 발전용 수요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주유소 판매가격)은 걸프 사태의 영향으로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 '90년 11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89년보다는 평균 6~28% 높은 수준이다. 보통無鉛휘발유의 경우 걸프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21엔이었으나 11월에는 138엔까지

상승했으며 '90년도말('91년 3월)에는 128엔으로 하락했다. 보통휘발유의 '90년도 평균 소비자가격은 128엔으로 '89년의 가격보다 8엔이 높은 수준이며 고급휘발유는 6엔이 높은 144엔을 기록했다. 등유와 경유의 가격추이도 휘발유와 비슷하게 움직였으며 '90년도의 평균가격은 등유와 경유가 전년도에 비해 리터당 각각 9엔이 높은 51엔, 78엔에 달했다. 원유의 평균도입단가는 '89년보다 리터당 4엔이 높은 20엔을 기록했다.

III.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현황

1. 유통구조 현황

日本の 석유제품 유통구조는 크게 제품을 생산하는 정제업자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원매회사),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업자(특약점 및 일반주유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원유수입은 '62년부터 자유화되었으며 휘발유, 등유, 경유를 제품수입은 '86년부터 자유화되었다.

유통단계별 석유제품의 판매는 '90년도의 경우 휘발유는 거의 전량이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경유는 약 50%가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나머지는

석유제품의 주유소 판매가격

(단위 : ¥/ℓ)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 유	등 유	원유도입
'90년도 평균	144	128	78	51	20
'89년도 평균	138	120	69	40	16

주 : 소비세가 제외된 전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임. (소비세는 휘발유 : ¥53.8/ℓ, 경유는 ¥24.3/ℓ 임).

원매회사나 특약점이 대규모 수요처인 전국화물자동차협회 등과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등유는 원매의 직매나 농협, 특약점 및 일반 판매점의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판매량의 20%만이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정제업자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며 대부분의 석유제품을 그룹내의 원매회사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원매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정제업자는 '86년에 제정된 "특별석유수입 잠정조치법"에 의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91년 3월말 현재 일본의 정제회사는 18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총 정제능력은 4.6백만b/d에 이르고 있다. '90년도의 경우 회사별 정제능력은 코스모石油가 645천b/d로 가장 큰 규모이며 원유처리량은 出光興産이 가장 많은 486천b/d(연간 처리량 28,179천kl)이며 가동률은 中繩石油정제회사가 90.5%로 가장 높다.

元賣會社は 정제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도매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품의 일부는 직영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대규모 수요처에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일본 석유유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91년 3월말 현재 일본의 원매회사는 13개 회사에 달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원매회사는 日本石油로서 '90년도 연료유 판매량의 16.7%, 휘발유 판매량의 16.8%를 점유하고 있다.

원매회사와 정제회사는 상호 및 일방의 자본출자

관계와 업무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석유회사는 6개의 그룹과 정제회사 혹은 원매회사만 갖고 있는 3개의 비그룹 석유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별 정제능력에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그룹은 日本石油그룹으로 日本 전체 정제능력의 1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석유제품 판매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19.5%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外資系 石油會社は 日本석유그룹, 昭和シェル그룹, 동연그룹으로서 정제설비의 47%, 연료유 판매량의 48%를 점유하고 있어 民族系 石油會社에 비해 시장 점유율은 약간 낮은 편이다. 그러나 휘발유 판매량에 있어서는 외자계인 동연그룹이 20.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외자계 석유회사의 휘발유 판매시장 점유율은 5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외자계 원매회사가 등·경유보다는 휘발유 중심의 판매전략을 펼치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의 최종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업자는 원매회사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특약점 판매업자와 일반 판매업자로 구분된다. 특약점 판매업자는 원매회사와 특약계약을, 일반 판매업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약점 판매업자는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특약점 주유소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며 일부 제품은 일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판매업자중 일부는 원매회사의 자금지원을 받아 주

日本の '90년도 석유회사 그룹현황

(단위: 천kl)

그룹/회사명	정 제 능 력		연 료 유		휘 발 유	
	(천b/d)	점 유 율	판 매 량	점 유 율	판 매 량	점 유 율
일본석유그룹(정3, 원2)	847	18.4%	42,685	19.5%	8,210	18.2%
삼릉석유그룹(정1, 원1)	363	7.9%	18,176	8.3%	3,710	8.2%
소화·셸그룹(정3, 원1)	500	10.9%	24,399	11.1%	5,895	13.1%
동연그룹(정4, 원4)	767	16.7%	37,852	17.3%	9,385	20.8%
출광흥산그룹(정2, 원1)	735	16.0%	33,001	15.0%	6,575	14.6%
공동석유그룹(정3, 원1)	615	13.4%	29,489	13.4%	5,195	11.5%
코스모석유社(-, 원1)	645	14.0%	29,023	13.2%	5,503	12.2%
太陽석유社(-, 원1)	65	1.4%	3,427	1.6%	683	1.5%
부사흥산社(정2, -)	-	-	1,361	0.6%	-	-
총 계(정18, 원12)	4,601	100%	219,413	100%	45,156	100%

주: (정)은 정제회사를, (원)은 원매회사를 의미함.

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본으로 주유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90년도 전체 고정식 주유소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특약점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특약점과 일부지역에서 판매활동을 펴고 있는 특약점으로 구분되는데 종합상사계열에 특약점과 함께 다수의 원매회사와 복수거래를 하고 있어 원매회사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대규모 특약점은 LPG, 주택설비기기, 가전기기 및 자동차용품의 판매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91년 3월말 현재 특약점 판매업자는 8,080명, 일반판매업자는 23,037명에 달하며 기타 판매업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판매업자수는 '91년 3월말 현재 32,642명으로 전년 대비 193명이 감소하였다. '91년도의 경우 시장에서 탈퇴한 판매업자는 803명으로 이르고 있는데 이는 자가상승에 따른 업종전환과 인력부족에 의한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규참여한 판매업자는 610명이며 이들은 주로 원매회사, 종합상사, 대규모 특약점들로서 주유소신·증설 자유화 및 轉籍규제폐지로 인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주유소 집중이 어느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주유소를 설비에 의해 구분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비를 갖추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고정식 주유소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주유소(可搬式 주유소)로 대별되며 고정식 주유소는 주유소 수 및 월간 판매량에 있어 이동식 주유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91년 3월말 현재 고정식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95%, 나머지 5%는 이동식 주유소가 점유하고 있으며 고정식 주유소중에서 46.2%는 특약점 주유소이고 나머지 53.8%는 일반 판매점 주유소이다.

日本の 주유소는 '90년도말 현재 58,614개소로

고정식 주유소는 전년 대비 477개소가 증가한 반면 이동식 주유소(可搬式 주유소)는 148개소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29개의 주유소가 증가했다. '83년부터 감소하던 주유소가 '90년도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85년부터 주유소를 감축시켜 왔던 정부의 주유소 구조개선대책이 '90년 3월로 일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62년부터 시작되었던 주유소의 건설규제 및 轉籍규제가 '90년 4월부터 자유화됨으로써 신규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식 주유소가 감소한 것은 허약한 경영기반, 즉 월간 휘발유 판매량이 고정식 주유소의 1/7에 미치지 못하여 이동식 주유소가 고정식 주유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주유소와 판매업자 수는 석유산업의 경영악화 및 주유소 구조개선대책으로 인해 80년대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83년 이후 '89년도까지 주유소보다 판매업자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주유소의 경영집약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90년도에도 판매업자는 감소했으나 주유소는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주유소의 경영집약화가 '90년도에는 가속화되고 있는 추이이다. 이에 따라 '83년도에 판매업자당 1.67개에 달했던 주유소는 '90년도에 1.8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주유소당 월간 휘발유 판매량도 '84년의 51.9kl에서 '90년도에는 63.7kl로 증가했다.

유통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최근들어 주유소의 경영근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원매회사는 '90년도에 경영실적이 저조한 주유소와 도심지의 주유소를 폐지하는 대신 외곽지에 주유소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주유소를 개조하여 주유소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90년도에 석유업계는 총 설비투자액의 35%에 해당된 1,808억엔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유소 건설규제가 폐지된 이후 주유소의 대형화, 집약화 및 효율화가 지속

주유소 및 판매업자 추이

	1972	1980	1983	1986	1988	1989	1990
주유소(A)	49,544	59,209	59,329	58,729	58,411	58,285	58,614
고정식	42,802	54,805	55,375	55,194	55,151	55,120	55,597
이동식	6,742	4,404	3,954	3,535	3,260	3,165	3,017
판매업자(B)	n. a	36,344	35,452	34,217	33,298	32,835	32,642
집약도(A/B)	n. a	1.63	1.67	1.72	1.75	1.75	1.80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판매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농협은 설비·체계의 근대화, 경쟁력 강화, 시장 점유율 증대 및 판매량 확대 등의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60개의 주유소 신설, 77개의 폐지·대체 건설 및 기타 160개의 改造까지 포함 총 295개의 주유소를 신설·개조하는 근대화계획을 추진중이다.

2. 유통계열화 현황

'90년도의 경우 원매회사의 제품을 계열화에 의해 판매하는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54,223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정 원매회사와 특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비계열 주유소(無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계열 주유소는 복수의 원매회사와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계열의 거래되는 轉賣品을 취급함으로써 과당경쟁과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원매회사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고정식 주유소의 경우 일본석유그룹이 가장 높은 1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동식 주유소는 출광홍산그룹이 23.8% 차지하고 있다. 비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은 고정식 주유소의 경우 2.5%인데 반해 이동식 주유소의 경우에는 10.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원매회사가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주유소의 계열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정식과 이동식 주유소를 합한 계열 주유소

의 점유율에 있어서는 일본석유그룹이 19.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정식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의 건설·운영에 원매회사가 직접 자본을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출자한 주유소(直營주유소)는 20.5%인 11,146개에 달하고 있다. '91년 3월말 현재 원매회사가 판매업자에 대해 주유소의 토지 및 설비를 모두 대여해준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15.5%이며 토지, 설비의 일부를 대여해준 형태는 5.0%에 해당한다. 석유회사에 계열화된 고정식 주유소중에서 직영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79.4%는 개인의 자본에 의해 건설·운영되는 自營주유소이다.

9대 종합상사는 '90년도에 5,893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농협은 4,831개의 주유소를 운영, 종합상사와 농협이 전체 고정식 주유소의 약 20%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사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모두 원매회사에 계열화되어 있으며 종합상사 주유소중 약 11%는 원매회사가 직영하는 주유소인데 반해 농협 주유소에는 원매의 직영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국농협은 993개의 이동식 주유소를 운영, 전체 이동식 주유소의 3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동식 주유소가 단위면적당 연료유 판매량이 적은 농촌지역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유통업계의 경영실적

日本 유통업계의 '90년도 경영실적은 걸프사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의 판매량 증가 및 판매

'90년도 日本의 석유회사별 계열 주유소 현황

그룹/회사명	고정식	점유율	이동식	점유율	합계	점유율
일본석유그룹	10,709	19.3%	609	20.2%	11,318	19.3%
삼릉석유그룹	4,453	8.0%	190	6.3%	4,643	7.9%
소화·Shell그룹	6,998	12.6%	242	8.0%	7,240	12.4%
동연·옛소그룹	8,986	16.2%	244	8.1%	9,230	15.7%
출광홍산그룹	8,893	16.0%	719	23.8%	9,612	16.4%
공동석유그룹	6,381	11.5%	326	10.8%	6,707	11.4%
코스모석유社	6,801	12.2%	346	11.5%	7,147	12.2%
태평석유社	324	0.6%	2	0.1%	326	0.6%
삼정석유社	681	1.2%	11	0.4%	692	1.2%
(계열 주유소 계)	54,223	97.5%	2,689	89.1%	56,915	97.1%
(비계열 주유소 계)	1,371	2.5%	328	10.9%	1,699	2.9%
총 계	55,597	100.0%	3,017	100.0%	58,614	100.0%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마진 증가로 호조를 나타냈다. 원매업계와 판매업계 모두 걸프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90년도 상반기에는 經營利益이 소폭에 머물렀으나 월정방식이 채택된 '9월이후 이익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정방식 도입으로 '90년도 하반기에 원매업계에서 3,400억엔, 판매업계에서 2,100억엔으로 석유업계 전체로는 약 5,500억엔의 이익이 증가되었으며 판매업계보다는 원매업계의 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다.

11개 원매회사의 '90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売上高는 20.3%가 증가한데 비해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2,588억엔에 이르고 있다. 이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보다 판매마진의 인상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經常利益은 전년 대비 12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영업외 손실이 전년보다 30%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90년 12월말 결산인 셀, 모빌, 옛소 3개 원매회사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26%, 74% 증가한데 반해 '91년 3월말 결산인 나머지 8개 원매회사의 경영, 경상이익률은 각각 53%, 148%로써 12월 결산회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걸프사태에 다른 이익증대를 말해주고 있다.

경영이익은 판매업계에서도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유의 '90년도 판매마진(판매가격-매입가격)은 전년보다 리터당 5엔이 증가한 20엔을 기록, 이에 따른 경영이익은 약 8,948억엔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유와 경유의 판매마진도 16엔에 이르기 때문에 경유의 경영이익은

약 3,014억엔, 등유의 경영이익은 약 850억엔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업계의 경영효전에는 경영효율 향상과 고급 휘발유의 판매증대로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의 경영집약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90년도의 주유소당 月間 휘발유 평균 판매량은 '89년도보다 1.1kl 증가한 63.7kl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정식 주유소의 월간 판매량은 전년보다 4.1kl가 증가한 69.4kl에 달했다. 보통 무연휘발유보다 리터당 16엔정도 가격이 높은 고급 무연휘발유의 판매량 점유율은 '89년의 12.4%에서 '90년에는 13.5%로 증대되었다. 자원·에너지청에 보고한 주유소의 보통 및 고급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19.6엔인데 반해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정보센터가 집계한 전국의 '90년도 평균 판매가격은 고급휘발유가 ¥144/ℓ, 보통휘발유가 ¥128/ℓ에 달하고 있어 실제의 경영이익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IV. 석유산업 규제와 유통구조 변화

석유산업의 규제는 1962년에 석유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유통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석유업법, 휘발유 판매업법, 특정석유제품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석유업법은 석유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반적인 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휘발유 판매업법('77년 제정)은 휘발유 판매 및 주유소 건설에 관해서, 특석법은 휘발유, 등유, 경유의 輸入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다.

11개 원매회사의 '90년도 결산

(단위 : 백만엔)

	3월결산(8개사)		12월결산(3개사)		합 계	
	실 적	증 감	실 적	증 감	실 적	증 감
판매량(천kl)	244,126	4.2%	71,543	1.9%	315,669	3.7%
매 상 고	9,797,453	20.4%	2,961,751	19.9%	12,759,204	20.3%
판매원가	8,797,715	20.9%	2,655,667	20.7%	11,453,382	20.9%
판매, 관리비	799,388	9.2%	247,583	10.4%	1,046,971	9.5%
영업이익	200,342	53.0%	58,499	26.2%	258,841	46.0%
영업이익률	2.04%	0.43%	1.98%	0.10%	2.03%	0.36%
영업외손익	-53,627	-	-9,235	-	-62,862	-
경상이익	146,719	147.9%	49,263	74.3%	195,982	124.1%
경상이익률	1.50%	0.77%	1.66%	0.52%	1.54%	0.71%

석유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했던 60년대와 70년대는 석유산업의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이며 석유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2차석유위기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기간이었다. 저유가로 인해 석유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석유시장의 개방화가 진전되는 80년대 후반은 석유산업의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기간이었으며 규제완화가 종결된 '92년부터는 석유산업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日本の 석유제품 유통구조는 일련의 석유산업 규제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왔다. 日本 정부는 80년대초부터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량 감소, 판매마진의 하락, 공급과잉에 따른 전매품의 등장, 판매경쟁의 격화 등으로 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주유소의 건설규제를 실시하였다. 80년대 중반에는 주유소 및 판매업자의 감축, 주유소의 정보화, 다각화 등 구조개선대책을 추진, 주유소의 경영을 개선시켰으나 인력부족, 지가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 石油業法 제정과 石油供給計劃

日本은 '59년 동경의 GATT총회와 '61년의 IMF 가입을 계기로 석유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결정, 석유심의 위원회의 설치, 석유공급계획의 수립 및 석유회사의 제품 생산계획등을 포함한 石油業法을 '62년에 制定했다. 이에 따라 '62년 7월부터 원유 수입은 자유화되었으나 석유제품의 수입은 국내 정제산업의 보호때문에 자유화에서 제외되었다. 石油業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유공급계획 책정

2. 정제업, 정제설비의 신·증설 및 개조의 허가제
3. 석유제품 생산계획의 신고
4. 석유수입업 신고
5. 석유제품 판매업 신고
6. 표준가격 설정
7. 석유심의 위원회 설치

통산장관은 석유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향후 5년 동안의 국내 석유수요전망에 기초하여 원유수입, 국내 제품생산 및 제품 수출·입 등의 공급계획을 수립, 매 회계연도말(3월말)에 발표하게 된다. 공급계획에 의거 각 정제회사는 제품생산계획을 수립하여 통산성에 보고하며 정제회사별 제품생산계획은 前年度の 원유처리량, 정제능력 및 제품판매량, 특히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석유업법이 제정된 이후 2차석유위기 직전까지의 일본의 석유수요는 급속하게 증가, 연료유는 60년대에 연평균 20.3%의 급속한 수요증가를 나타냈다. 70년대에는 1차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석유수요는 연평균 1.1%의 증가율에 머물렀으며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요증가율도 둔화되었으나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증가율은 70년대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석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석유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60년대에 정제설비 허가 취득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한 결과 日本의 정제능력은 '61년에 1.1백만b/d에서 '73년에는 7.1백만b/d까지 증대되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증대경쟁은 석유시장의 과열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석유업계의 체질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석유업법 제정이후 석유수요 및 정제능력 추이

	1960	1970	1980	1990	연 평균 증가율		
					1960	1970	1980
연료유수요(천kl)	29,517	187,297	209,219	217,844	20.3%	1.1%	0.4%
- 휘발유	5,860	21,014	34,543	44,738	13.6%	5.1%	2.6%
- 경유	2,129	12,003	21,563	37,674	18.9%	6.0%	5.7%
- 등유	1,912	15,835	23,565	26,553	23.5%	4.1%	1.2%
정제능력(천b/d)	1,149	3,740	5,940	4,552	12.5%	-	-2.6%
- 가동률(%)	59.4%	85.2%	66.0%	77.3%	+25.8%	-19.2%	+11.3%

주: 가동률의 증가율은 연도대비 가동률 증감 퍼센트 포인트임.

80년대초부터 석유수요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정제가동률이 저하하고 석유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정제가동률의 경우 '70년도에 85.2%에 이르렀으나 '80년에는 66.0%로 하락하였으며 '82년에는 55.1%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산성은 '82년부터 상압정제능력의 감축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82년에 5.9백만b/d에 이르던 일본의 정제능력은 '90년 현재 4.6백만b/d까지 감축되었으며 가동률은 약 80%수준까지 향상되었다.

1985년에 日本은 EC, IEA로부터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를 요청하자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을 제정하여 '86년도부터 석유제품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경질제품의 수입 자격은 정제업자에게 한정하고 수입규모를 정부의 통제에 묶어 두었다. 이는 동 제품이 민생용 연료일 뿐만 아니라 정제업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 국내 정제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 법률은 1995년도말('96.3)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2.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80년대 후반에 국제 석유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산성은 석유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6월에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점진적인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제1단계(1987. 7월) : 상압정제 및 2차정제설비허가제의 탄력적 운용

제2단계(1989. 3월) : 휘발유 생산할당제(PQ) 폐지

제3단계(1990. 4월) : 주유소 건설규제 및 전적(이적률)규제 폐지

제4단계(1992. 3월) : 원유처리지도 폐지
이 프로그램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87년에는 상압정제설비 및 2차정제설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석유수요가 주로 경질제품의 수요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정제설비의 허가를 실질적으로 자유화시킨 것이지만 상압정제설비는 허가제로 묶어 두었다. 휘발유 생산할당제(PQ)는 '89년에

폐지되었으며 휘발유의 소비억제와 판매업계의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던 주유소의 건설규제와 전적규제제도가 '90년에 폐지됨으로써 지정지구제를 제외하면 최종 판매단계의 규제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자유화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원유처리지도가 '92년 3월말에 폐지됨으로써 석유제품의 생산에서 최종판매단계까지의 실질적인 규제는 해제, 日本의 석유산업은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석유정책과 유통구조 변화

이와 같은 일련의 석유정책중에서 日本의 석유제품 유통구조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규제는 휘발유 생산할당제(Production Quota), 주유소의 구조개선대책, 주유소의 건설 및 轉籍규제, 원유처리지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휘발유 생산할당제(PQ)

60년대의 무리한 정제설비 확장은 석유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2차석유위기 이후 정제설비의 공급과다에 따른 휘발유의 공급과잉을 야기시켰다. 공급과잉된 휘발유를 처분하기 위해 석유회사는 계열을 무시하고 타사 계열의 판매업자에게 휘발유를 공급하는 전매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매품은 차별가격, 사후조정가격을 초래하여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8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의 전매품이 거래됨으로써 석유업계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日本 정부는 휘발유의 공급과잉을 억제시키고 공급과잉에 따른 과열 판매경쟁을 진정시켜 건전한 시장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석유회사의 휘발유 생산량을 매년 할당, 휘발유의 공급을 억제시키는 휘발유 생산할당제를 80년대초부터 실시했다. 석유업계에서는 휘발유의 생산할당제가 폐지되면 휘발유의 공급과잉이 발생, 가격이 리터당 30-40엔정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생산할당제가 폐지된 '89년 3월 이후에도 원유처리규제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폭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주유소의 건설 및 轉籍 규제

주유소의 건설규제는 2차석유위기시 석유소비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日本 정부는 80년대

초반에 판매업계의 집약화를 위해 주유소의 신설을 강력하게 규제 하였으며 판매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지구제로 고시하여 폐지된 주유소에 해당되는 만큼 주유소를 건설하는 폐지/대체건설(Scrap & Build)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주유소의 신설은 휘발유 자동차의 현저한 증가, 거주 인구증가에 의한 주유소당 월간 휘발유 판매량의 급증 등, 주유소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가했다.

주유소의 전적규제는 원매회사의 무리한 주유소 확보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주유소의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85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원매회사가 타사계열 주유소를 자사로 계열화시킬 경우 자사의 주유소를 그만큼 감축시켜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원매회사가 계열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轉籍의 조건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타 판매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래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주유소 건설 및 전적규제는 '90년 3월에 폐지되었다.

(3) 주유소의 구조개선 대책

80년대초부터 석유제품 및 휘발유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되자 통산성은 석유업계의 재편성(정제 및 원매업계의 집약화)과 아울러 주유소와 판매업자를 감축시키는 주유소의 구조개선대책을 '85년부터 추진하였다. 이 결과 원매업계에서는 '86년에 大協石油과 丸善石油가 합병하여 코스모석유가 발족되었으며 '89년 10월에는 아세아 석유가 코스모석유에 흡수되는 등 정제, 원매업계의 재편성이 진행되었다.

주유소의 정보화, 다각화, 집약화 등의 구조개선 대책은 주유소의 집약화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유소 감축이 주로 이동식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집약화는 주유소의 대형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89년도의 전체 주유소는 '85년도 대비 797개가 감소했으며 고정식 주유소는 328개 감소(-0.6%)한데 반해 이동식 주유소는 469개(-12.9%)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졌다. '90년도의 주유소 신·증설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주유소는 감소, 고정식 주유

소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주유소의 대형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조개선대책으로 인해 일반 판매업자와 원매의 주유소는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대신 농협과 종합상사의 주유소는 80년대에 꾸준히 증가, '90년도의 종합상사 주유소는 '85년 대비 559개가 증가했으며 농협의 주유소는 201개가 증가했다. '90년도의 판매업자는 '85년 대비 2,051명이 감소함으로써 판매업자당 주유소수는 '85년의 1.7개소에서 '90년도에는 1.8개소로 증가했다. 주유소 건설자유화 이후 원매회사와 종합상사에 의한 신규 진입의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 판매업자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유소의 정보화와 사업 다각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화의 대표적인 예는 전산화를 통한 POS(Point of Sale)로 집약되는데 주유소업자는 원매회사가 동 전산망을 이용하여 판매업자를 감시할 것으로 우려하여 정보화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주유소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통산성은 구조개선대책을 '89년도에서 '92년말로 연장시켰다.

(4) 원유처리 지도

원유처리지도는 '62년에 석유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규제로서 정부가 각 석유회사의 원유처리량을 각사의 제품생산계획에 의거하여 규제하는 제도이다. 걸프사태의 발발로 국제 석유시장에서 원유보다는 제품의 공급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정부가 원유수입과 국내 제품생산을 증대시키자 석유업계는 원유처리지도를 앞당겨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산성은 '91년 11월에 그룹 전체의 가동률이 80%를 상회할 경우 석유회사가 자주적으로 정제설비를 신·증설하며 산유국의 자본유치에 노력하는 권고안을 발표, 원유처리지도를 실질적으로 조기폐지시켰다.

원유처리지도폐지는 향후 석유산업의 경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87년 이후의 규제완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었지만 원유처리지도에 의해 석유제품의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산업의 본격적인 경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91년말 이후부터 통산

성은 원유처리지도 대신 행정명령으로 원유처리권 고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와 관련된 일련의 규제완화로 인해 주유소의 경영집약화와 아울러 주유소당 월간 휘발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월간 휘발유 판매량은 '85년의 54.1kl에서 '90년에는 63.7kl로 증

대되었다. 휘발유의 판매마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85년에 리터당 10.7엔에서 '90년도에서 20.5엔으로 급등하였다. 영업 및 경상이익율도 '85년도의 적자에서 점차 개선되었으나 '89년도에는 인건비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90년도에는 판매마진의 증대로 인해 경상·영업이익률은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석유산업규제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 추이

	1980	1985	1987	1989	1990
전체 주유소(개)	59,209	59,082	58,670	58,285	58,614
-고정식	54,805	55,448	55,254	55,120	55,597
-이동식	4,404	3,634	3,416	3,165	3,017
-원매계열주유소 ¹⁾	n.a	54,593	54,485	54,082	54,226
-종합상사운영	4,673 ²⁾	5,334	5,559	5,750	5,893
-전국농협운영	5,295 ³⁾	5,588	5,765	5,725	5,824
판매업자수(명)	36,344	34,693	33,822	32,835	32,642
집약도(개/명)	1.63	1.70	1.73	1.78	1.80
휘발유 판매량(kl/월)	48.9	54.1	57.1	62.6	63.7
-고정식	52.2	56.8	59.6	65.3	69.4
-이동식	6.5	7.3	7.8	8.0	n.a
판매마진(₩/ℓ)	13.0	10.7	12.3	15.0	20.0
영업이익율(%)	1.2	-0.8	0.0	-0.2	n.a
경상이익율(%)	1.3	-0.4	0.8	0.3	n.a

주: 1) 고정식 주유소 기준임. 2) '81년도 통계치임. 3) '82년도 통계치임

☐ 도서안내 ☐

석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석유산업의 발전사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엮음 -